

4年生以下 課題文①

오월

오월은

사랑과 행복으로

축복 받은 달

바쁘다는 핑계로

잊고 지냈던

사람들 기억나게 해주고

귀찮아서

무관심하게 대했던

몸도 마음도 불편한 친구에게

미안한 마음 갖게 해주고

부모님의 사랑

온 몸으로

느낄 수 있게 해주고

선생님의 깊은 은혜

잠시나마 깨달아

감사할 수 있게 해주는

일년

열두 달 중

가장 고마운 달

가장 아름다운 달

오월은 서로의 마음과 생각

이어주는 사랑의 오작교다

五月

五月は

^{あい}愛としあわせに

いわってもらう月

いそがしいというのを言いわけに

わすれてくらしていた

人たちを思い出させてくれるし

めんどくさくて

ひどいことをした

体も心も^{くる}苦しい友だちに(対して)

すまない^{きもち}気持ち(を)^も持たせてくれるし

^{りょうしん}両親の^{あい}愛

^{ぜんしん}全身で

^{かん}感じさせてくれて

先生の^{ふか}深い^{おん}恩

少しでも気付いて

^{かんしや}感謝させてくれる

一年

12 か月の中で

いちばんありがたい月

いちばん^{うつく}美しい月

五月はおたがいの心と考え

つなげてくれる^{あい}愛の「天の川」だ